

결혼이주민의 언어능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관한 연구

이용규*, 문형란**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A study on the path that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Marriage migrants affects to the quality of life

Yong-Kyu Lee*, Hyung-Ran Moon**
College of Public Service,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요 약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언어능력과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언어능력이 가족관계, 사회관계의 경로를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도권 지역의 다문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민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보통 이상이었으며, 한국어능력은 보통수준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한국어능력이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셋째, 고학력, 고소득, 자발만남 결혼이민자집단이 한국어능력, 가족관계,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고학력 및 저학력 집단, 고소득 및 저소득 집단, 자발만남 및 증개만남 집단의 삶의 질에 언어능력이 미치는 경로는 상이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가족관계의 역할이 언어능력보다 크게 나타났다.

주제어 : 언어능력, 결혼이주민, 삶의 질, 가족관계, 사회관계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path that their language competence impacts on the quality of life through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relationship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of Korea.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cluding linguistic competence paths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relationships, all paths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has been noted. Secondly, in highly educated, high-income and spontaneous-marriage-immigrants population groups, relationships among linguistic competence, family relationships,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turned out to be relatively high than comparative groups. third, every groups investigated in this study have different paths that the linguistic competence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but family relationship has a stronger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an any other variables including linguistic competence.

Key Words : linguistic competence, Marriage migrants, quality of life, family relationships, social relationships

Received 16 January 2015, Revised 20 February 2015
Accepted 20 March 2015
Corresponding author:Yong-Kyu Lee
(College of Public Service, Chung-Ang University)
E-mail : james@ca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이민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사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797,618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5%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장기체류 외국인은 1,377,945명(등록외국인 1,091,531명,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286,414명)이었다. 이들 중 한국사회에 정착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결혼 이주민으로 2014년 12월 현재 국내 등록외국인 중 13.8%인 150,994명이며, 누적 혼인귀화자포함하면 252,501명에 달한다[1]. 결혼이민은 1980년대 종교단체인 통일교에서 대규모 집단 국제결혼을 통해 본격화된 이후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통하여 급증하였다.

한국사회에 정착한 결혼이주민은 사회적응, 인권, 자녀교육, 경제적 어려움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 초기부터 직면하는 언어문제에 따른 의사소통의 장애, 생활습관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내 갈등, 외국인으로서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순차적으로나 병행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결혼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이주민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보다 발전된 국가로 이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이주민이 해당국의 주민보다 대체로 학력이나 경제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시작하기 마련이다. 한편, 저학력, 저소득 계층에 대한 편견으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주민 혐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 하물며, 오랜 동안 단일민족을 강조해 온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심각할 수 있다.

어느 국가라도 이주민의 문제를 방치하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진화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이주민의 사회부적응이 뒤엉켜 이들 이주민의 상황이 극단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이주민 자신에게는 삶의 질이 악화될 것이고, 사회 안전과 통합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주민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이후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에서부터 경제적 그리고 사회관계까지 대단히 방대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당연히 변화하지만, 특정한 시점, 특정한 집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요인이 복수의 변인을 매개로 특정집단의 삶의 질을 커다랗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추정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입증된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어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결혼이주민은 상당 기간 동안 제한된 소통능력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결혼이주민의 문제 해결방안도 언어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 정부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언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긴급하게 교육이 필요한 이민학생(초·중등학교)들을 위한 Emergency Immigrant Education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645시간의 통합과정(integration courses)중 이주민 독일어 교육에 600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최대 500시간의 프랑스어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역사회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일만운영기관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이 이들 기관사업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

각국 정부 언어지원정책의 전체처럼, 결혼이주민의 언어능력은 사회관계망이나 기타 인적자본과 함께 유입국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도구이자[3], 다른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수단이 된다[4]. 즉, 언어소통이 나아지면 배우자는 물론 가족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져,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나아가 외부사람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 사회관계도 긍정적으로 변모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언어능력은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향상을 매개로 이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특성, 즉 경제적 상황, 학력 그리고 배우자 만남형태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즉, 개인적 특성이 언어능력,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경로와 관계성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언어능력, 가족 및 사회관계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계성 추정이 거시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찰 변인 간 관계에 대하여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언어능력이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를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유효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결혼 이주민의 개인적 특성(예: 학력, 경제력, 만남형태 등)에 따라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간의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연동되고 있는지(집단 간 경로 상이성 분석)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주민 집단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이며,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아울러, 인간은 복잡한 존재여서 삶의 질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수준과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학자와 시대에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기도 하다[5].

삶의 질은 사회적 조건 및 제도와 사회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삶을 가치 있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만족감으로 파악할 수 있다[6].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질의 개념이 객관적 상황조건 보다는 주관적 요소 즉, 인간의 질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Campbell(1981)은 삶의 질은 다양성이며, 개인의 경험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의 안녕상태라 정의하였다[7]. 세계보건기구(WHO, 1993)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의 삶의 문화와 가치 체계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삶의 위치 인식이라고 한다[8].

선행연구에 의하면 객관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삶의 질은 전적으로 주관적 현상이다[9]. 그러나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객관적 삶의 조건을 어떻게 인지·평가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삶의 조건들은 주관적 삶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도 필요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10].

2.2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건강상태, 학력 등 개인적 요인에서부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요인까지 대단히 다양하다. 실제로 여러 변인이 특정 집단의 삶의 질에 병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특정 변수가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민의 경우는 연령별 집단이나 소득계층별 집단과는 다르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언어능력으로 보았다. 즉, 언어능력의 향상에 따라 통상적으로 모든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예: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보았다. 만약,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이 계량적으로도 적정성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나면, 각국 정부가 이주민에게 지원하는 언어능력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을 일정수준 부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민의 경제력, 학력, 만남형태 등 개인적 특성은 상가에서 언급된 변인 간의 관계성을 조절하는 변수로 보았다. 즉, 만남형태가 중개업소가 아니라 자발적이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우리사회적응을 위한 자세도 적극적일 것이어서 언어와 다른 요인 간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이거나 학력도 언어습득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요인일 것으로 보여, 고소득계층, 고학력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2.2.1 개인특성과 삶의 질

개인에게 내재된 특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수많은 경험적 연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습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연구모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서 경제력, 학력, 만남형태를 선정하였다.

결혼이주민의 경제력은 언어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언어와 가족관계 간의 관계성이 경제력이 하위인 이주민보다는 경제력이 상위층에 속하는 이주민 그룹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물질적인 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Diener(2000)는 국가 간의 샘플에 있어서 1인당 소득과 주관적인 복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1]. 반대로 Easterlin(1995)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12], 이처럼 상반된 연구결과는 삶의 만족이 상대적이어서, 결혼이민자의 집단에서 소득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력도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을 갖춘 사람이 언어학습능력이 뛰어나고, 이에 따라 다른 변인 간의 관계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명준(2011)의 연구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최종학력과 한국어능력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13].

배우자 만남의 형태도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이주민의 경우, 대체적으로 모국에서 한국에서 온 배우자를 중개업소를 통하여 짧은 시간동안 만난 후, 결혼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 당사자 개인이 결혼 자체에 대한 정신적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인의 소개나 그 밖의 여유롭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우자를 판단하고 결혼 여부를 결정할 후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거쳐 한국행을 택한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한국 사회적응에 대한 준비기간이 길며, 한국어 습득의지도 다른 그룹에 비해 강할 것이고, 이에 따른 연쇄 효과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이 배우자를 만난 경위와 부부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결혼 전 제공된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결혼중개업을 통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부부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

2.2.2 언어능력과 삶의 질

이주민 집단에게 언어능력은 다른 요인을 매개로 간

접적으로는 물론 직접적으로도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어구사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다는 결과도 있으나[15],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도 존재한다[16]. 정대용(2011)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어 문해교육이 자신감 향상, 자녀와의 관계개선 및 사회활동 참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17]. 기존 연구결과가 언어능력과 삶의 질의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긍정하는 논문의 수가 더 많고, 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논문이 상당하다. 따라서 두 변인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에는 논리적 흠결이 적어 보인다.

2.2.3 가족관계와 삶의 질

모든 집단에서 가족관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지, 집단에 따라 그 정도가 상이할 것이다. 결혼 이주민은 국내에 다른 지인이 없어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목이 될 것이어서, 다른 인구 집단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관계성을 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타난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추정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용길(2013)의 연구에서 가족들과 관계의 만족도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18],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수행한 신성일(2012)의 연구를 보면, 부부관계와 가족지지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2.2.4 사회관계와 삶의 질

현재까지 나타난 삶의 질 관련 연구결과는 거의 모든 인구집단에서 사회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친구나 동료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서적(평안함,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해 주는 것), 인지적(정보나 충고를 제공해 주는 것), 물질적 지원을 포괄하는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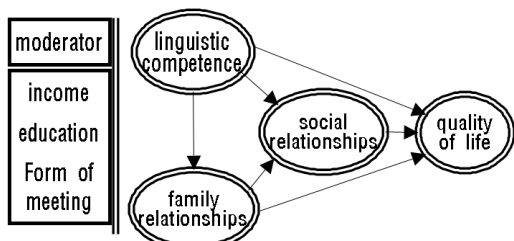
경험적 연구도 사회적 관계망은 광범위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부터 비롯되는 불행한 결과를 감소시키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며[20], 이주 현지인과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의 학습이 촉진되어[21], 일반적인 적응과 만족수준이 증

가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22]. 하태희(2012)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중년남성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23].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경로의 설정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언어능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어능력이 가족관계, 사회관계 요인을 매개변수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경험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관계성과 이의 경로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경로를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 경로 1 : 언어능력 → 삶의 질
- 경로 2 : 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삶의 질
- 경로 3 : 언어능력 → 사회관계 → 삶의 질
- 경로 4 : 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사회관계 → 삶의 질

3.2 조사도구

연구대상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은 일상생활 활용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상생활 언어능력 요인분석 결과 일상생활 언어능력의 1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척도는 김은실(2007)이 결혼이민여성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4].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와 친구나 이웃지 지 문항으로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민성길 등(2000)이 개발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척도(WHOQOL-BREF)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5].

3.3 자료의 수집 및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언어능력과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언어능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다문화 결혼이주자들 중 남성과 한국어에 익숙한 조선족을 제외한 모집단을 설정하고, 유의표출을 통해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 전 모국을 보면, 베트남이 162명 50.8%로 가장 많았고, 중국한족 76명 23.8%의 순을 보였다. 본인 학력은 고졸 125명 39.2%로 가장 많았고, 중졸 68명 21.3%, 대졸 50명 15.7%의 순을 보였다. 배우자 학력은 고졸 148명 46.4%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과 대졸이 각각 50명 15.7%의 순을 보였다. 연구대상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평균 31.1세로 나타났고, 한국이민 기간은 평균 약 5년, 결혼기간도 약 5년 2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frequency	percent
homeland	China	76	23.8
	Vietnam	162	50.8
	Philippines	42	13.2
	Japan	10	3.1
	Cambodia	8	2.5
	Mongolia	3	.9
	Thailand	3	.9
	USA	3	.9
	others	12	3.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8	5.6
	middle school	68	21.3
	high school	125	39.2
	junior college	36	11.3
	university	50	15.7
	graduate school	19	6.0
	non-response	3	.9
total		319	100.0
N		mean	SD
age	313	31.1	7.4
immigration year	255	2009.0	4.6
marriage year	280	2008.8	5.2

4. 연구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삶의 질 결정요인으로 선정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가족관계와 삶의 질이 각각 3.63, 3.56으로 절대값의 관점에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 3.4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국어능력은 3.11로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	mean	SD
linguistic competence	313	3.11	0.83
family relationships	319	3.63	0.83
social relationships	319	3.40	0.80
quality of life	319	3.56	0.73

4.1 삶의 질 영향경로 구조분석

4.2.1 기본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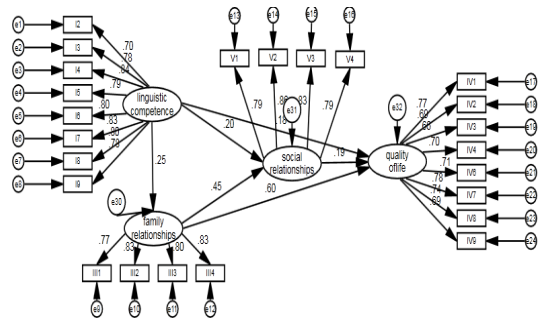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측정된 변수(외생변수)들과 공통요인(내생변수)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인과 모형에서 표준화된 계수들의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적합성 검증은 모델의 부합지수와 경로계수에 의해 검증하였다.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구조모형 즉, 한국어능력, 가족관계, 사회관계,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지수는 다음과 같다. χ^2/df 는 2.528, NFI는 0.879, CFI는 0.922, RMSEA는 0.069 등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CFI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값을 충족시키고 있었지만 NFI는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중요성은 측정요인의 예측에 있고, 적합도지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 goodness-of-fit index

goodness-of-fit	$\chi^2(df)$	χ^2/df	RMSEA	NFI	CFI
	621.900(246)	2.528	0.069	0.879	0.922

각 요인들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Fig. 2>로 정리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이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경로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9>, 직간접 효과는 <Table 10>과 같다. 결과를 보면, 한국어능력은 가족관계, 사회관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고, 가족관계도 사회관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관계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경로 1(언어능력 → 삶의 질), 경로 2(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삶의 질), 경로 3(언어능력 → 사회관계 → 삶의 질), 경로 4(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사회관계 → 삶의 질)가 모두 유의미한 경로로 나타났으나, 직간접효과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Table 4> path coefficient

		Estimate	S.E.	C.R.	P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250	0.052	4.045	***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199	0.045	3.46	***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449	0.059	7.13	***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181	0.039	3.824	***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604	0.062	9.425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188	0.057	3.393	***

언어능력이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리고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는 한국어구사능력이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26], 이주민의 한국어 수준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27], 의사소통능력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

구[28] 등을 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언어능력이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경로가 전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한편, 언어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전체영향은 직접효과 0.181보다 간접효과 0.209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언어능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가 커다란 매개역할을 하였고, 특히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큼을 보여주었다.

가족관계가 직접 효과판으로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언어능력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 관계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언어능력이 가족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회귀계수가 높지 않다. 그러므로 제 3의 요인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5> direct-indirect effect

	linguistic competence	family relationships	social relationships
total effect			
family relationships	0.250	0	0
social relationships	0.311	0.449	0
quality of life	0.390	0.688	0.188
direct effect			
family relationships	0.250	0	0
social relationships	0.199	0.449	0
quality of life	0.181	0.604	0.188
indirect effect			
family relationships	0	0	0
social relationships	0.112	0	0
quality of life	0.209	0.084	0

4.2.2 학력 집단 간 영향경로 차이점 분석

삶의 질 결정요인의 경로 관계를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집단으로 구분하여 영향경로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학력집단별 분석결과를 보면, 고학력 집단의 경우 삶의 질은 경로 1(언어능력 → 삶의 질), 경로 3(언어능력 → 사회관계 → 삶의 질)이 유의하였으나, 가족관계, 가족관계→사회관계의 삶의 질 경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저학력 집단의 경우 언어능력, 언어능력과 가족관계, 언어능력과 사회관계, 언어능력과 가족 및 사회관계가 모두 유의미한 경로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집단의 경우, 언어능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고학력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언어적 소통능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어능력이 상대적

으로 삶의 질에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회관계 등이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path coefficient by education group

classification			고학력집단			
			Estimate	S.E.	C.R.	P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139	0.071	1.262	0.207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194	0.07	2.04	0.041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502	0.134	4.258	***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149	0.054	1.693	0.091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453	0.118	3.675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312	0.096	2.735	0.006
classification			저학력집단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290	0.073	3.818	***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219	0.057	3.018	0.003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433	0.063	5.618	***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202	0.053	3.535	***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644	0.073	8.526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146	0.076	2.25	0.024

4.2.3 경제력 집단 간 영향경로 차이점 분석

삶의 질 결정요인의 경로 관계를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으로 구분하여 영향경로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소득집단별 분석결과를 보면, 고소득 집단의 경우 삶의 질은 경로 1(언어능력 → 삶의 질), 경로 2(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삶의 질), 경로 4(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사회관계 → 삶의 질), 가족관계, 가족관계→사회관계의 삶의 질 경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저소득 집단의 경우 경로 1(언어능력 → 삶의 질)만이 유의한 경로였고, 가족관계에서 삶의 질 경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소득집단의 경우 언어능력이 사회관계로 이어지는 경로가 작동하지 않았던 반면, 저소득집단의 경우 언어능력과 가족관계, 사회관계와 삶의 질 간 연관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집단의 경우 언어능력을 통해 이민자가 독자적으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반면에, 고소득집단의 경우는 사회관계의 형성이 언어능력 이외에도 가족 등의 지지를 통해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집단의 경우는 사회관계가 비교적 확일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7> path coefficient by income group

classification			high income group			
			Estimate	S.E.	C.R.	P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253	0.071	2.723	0.006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114	0.05	1.319	0.187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508	0.081	4.771	***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338	0.062	4.52	***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447	0.101	4.739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199	0.127	2.22	0.026
classification			low income group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149	0.105	1.343	0.179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337	0.113	3.214	0.001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281	0.118	2.722	0.006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226	0.07	2.367	0.018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668	0.096	5.421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032	0.065	0.334	0.738

4.2.4 만남형태 집단 간 영향경로 차이점 분석

삶의 질 결정요인의 경로 관계를 자발만남과 중개만남으로 구분하여 영향경로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만남형태별 분석결과를 보면, 자발만남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 하였으며, 가족관계, 가족관계→사회관계에서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경로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중개만남의 경우 경로 1(언어능력 → 삶의 질), 경로 2(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삶의 질)가 유의미하였고, 가족관계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자발만남과 중개만남의 차이는 사회관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있었고, 중개만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관계가 낮게 형성되어서, 삶의 질이 가족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Table 8> path coefficient by form of meeting group

classification			voluntary meeting group			
			Estimate	S.E.	C.R.	P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237	0.069	2.87	0.004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166	0.061	2.079	0.038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364	0.078	4.249	***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165	0.049	2.489	0.013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525	0.074	6.311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258	0.072	3.428	***
classification			agencies meeting group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209	0.086	2.114	0.035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197	0.064	2.2	0.028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533	0.083	5.265	***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258	0.062	3.578	***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747	0.107	6.865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027	0.106	0.308	0.758

5.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언어능력 과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언어능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수도권 지역의 다문화 결혼이주자들 중 여성과 조 선족을 제외하고 유의표출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민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보통 이상이었으며, 이들 중 사회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어능력은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어능력이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고, 영향력의 크기는 가족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순으로 나타났고, 회귀계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가족관계가 삶의 질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언어능력은 제한적인 영향만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집단의 언어가 삶의 질에 미치는 경로는 상이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가족관계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전략이 가족관계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학력집단의 경우, 언어능력이 가족관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학력집단의 한국어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월소득 200만원 이상 고소득 결혼이민자들의 언어능력이 사회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이민자들의 경우 언어능력, 가족관계, 삶의 질이 중요한 경로로서 언어능력과 가족관계 제고를 위한 전략이 유효하였던 반면에 저소득 집단의 경우는 언어능력과 가족관계, 사회관계와 삶의 질의 경로가 유효하지 않아 가족관계 제고 자체를 위한 전략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발만남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였고, 중개만남 집단의 삶의 질은 언어능력, 가족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사회관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중개만남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민의 언어지원프로그램은 정책적으로 매우 유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직간접 효과를 종합해보면, 가족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인보다 컸다. 또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언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나, 핵심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언어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제한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이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지원정책 이외의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획일적인 언어지원프로그램보다는 표적 집단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주민의 언어지원프로그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족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언어와 가족 및 사회관계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정책혼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언어능력에서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한 연구로서 결혼이민자의 학력, 경제력, 만남형태에 따라 이러한 경로가 차별화될 수 있음을 규명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거주 결혼이민자로 대상을 한정하였고, 임의표출방식으로 표본추출을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언어능력, 배우자 중심의 가족관계, 친구 및 이웃 중심의 사회관계, 삶의 질의 변수에만 한정된 연구로서 향후에는 연구모형을 보다 다양한 변인을 포함시켜 결혼이민자 삶의 질 제고방안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statistics, Jan. 2015.
- [2] Jae-gak Jeong, German Immigration Policy - Continuity and Conflicts in Major Policies on Immigrant Integration,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21(3), 79-106, 2011.
- [3] Hartmut Esser, Does the "New" Immigration Require a "New" Theory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126-1159, 2004.
- [4] Anita Cvetkovic,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Northern Sweden: A Case Study of the Municipality of Strömsund, International Migration. 47(1): 101-131, 2009.
- [5] Yong-kyu Lee, Yong-Jun Kye, Yong-chan S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to the quality of life and the difference factors such as age, gender, Korean Local Government Research , 25(3): 173-199, 2013.
- [6] Hua-shan, An,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and Chinese Employed-Married

- Women, Ph.D.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8.
- [7] A. Campbell,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1.
- [8]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 of WHOQOL Focus Group Work. MNH/PSF/93.4. WHO, Geneva, 1993.
- [9] S. K. Chaturvedi, What's important for quality of life to Indians - In relation to cancer, *Social Science & Medicine*, 33(1): 91 - 94, 1991.
- [10] Yong-chie Park, *Quality of Life : Status Quo and What Needs to be Done*, Theses, The University of Seoul, Vol. 30, 67-92, 1996.
- [11] Ed. Diener,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2000.
- [12] Richard A. Easterlin,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 35-47, 1995.
- [13] Myeong-jun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nculturation Type to the Quality of Life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master's degree, Kyonggi University, 2011.
- [14] Jae-kyu Park,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of Rural Lif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Rural Economic*, 29(3): 67-84, 2006.
- [15] Ji-hye Yi, *Marit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master's degre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 [16] Soon-Mi Yang, Hyun-Sook Chung, Variable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marital life and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of rural in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1(3): 223-252, 2006.
- [17] Dae-yong Jeong, *The meaning of literacy education on the life adaptation process of intern marriage wemen*, Ph.D. dissertation, Soongsil National University, 2011.
- [18] Yong-Kil Kim, *A study on the physical, social, and leisure-welfare factors i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Ph.D.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13.
- [19] Sung-II Shin, *A Meta-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Variables of Elders' Quality of Life*, Ph.D.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2.
- [20] K. S. Rook,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097-1108, 1984.
- [21] B. Ataca & John W. Berry,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 - 26, 2002.
- [22] J. W. Berry, U. Kim, T. Minde, & D. Mok,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 - 511, 1988.
- [23] Tae-Hi Ha, *Development of the Structural Model of Middle-aged Men's Subjective Quality of Life*, Ph.D.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2.
- [24] Eun-sil Kim,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ocial Adjustment of Marriage-based Immigrant Wemen*, Master's degree, Chungbuk Univ. 2007.
- [25] Sung-kil Min, Chang-il Lee, Kwang-il Kim, Shin-young Suh, & Dong-kee Kim,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WHOQOL-BREF),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 39 No. 3, pp. 571-579, 2000.
- [26] Ji-hye Yi, *Marit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master's degre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 [27] Soon-Gyu Kim & Choo-Jae Lee, The Effect of Linguistic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among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 15 No. 1 pp. 5-20, 2010.
- [28] Miki Hong,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Dyadic Adjustment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Me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ouple's Communication*,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9.

이 용 규(Lee, Yong Kyu)



- 1983년 2월 : 중앙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1989년 12월 : 미국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1989년 ~ 1990년 : 미국 Seton Hall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조교수)
- 1991년 ~ 현재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정교수)
- 관심분야 : 정보통신정책, 재정정책
- E-Mail : james@cau.ac.kr

문 형 란(Moon, Hyung Ran)



- 2006년 2월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2013년 6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 관심분야 : 다문화정책, 복지정책
- E-Mail : mhr4729@hanmail.net